

자진모리장단에 대한 초등교사의 PCK 연구

김 희 숙*

본 연구는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자진모리장단에 대한 교사의 PCK 실태를,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교사들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서 장단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개정된 교육과정에 도입된 새로운 국악 용어는 알지 못하였다. 교사의 장단 연주 수준은 음악 수업에서 반주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본시 목표 도달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지식 및 교육과정 지식의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교사의 PCK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음악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교사들이 이해하기 쉽고,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새로운 용어의 도입은 고려되어야겠다. 또한 교사 연수 내용의 적합성, 인터넷 사이트의 제도권 수용 및 검증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겠다.

※ 주제어: 자진모리장단, PCK, 초등교사, 질적연구

차 례

I. 서론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자료수집

3. 자료분석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초등 교사들이 생각하는 자진모리장단의 개념은 무엇인가?

2. 초등 교사들의 자진모리장단 연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3. 초등 교사들이 '자진모리장단의 세 살려 장단 치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IV. 결론 및 제언

* 대구동평초등학교 교사

I. 서론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화 주도자(change agent)는 교사이다(M. Fullan, 2001). 교육과정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교사에 의해 변화 과정을 거치는 교육과정 실행이 바람직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육과정의 질은 확보될 수 없다. 즉,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교육의 질은 확보될 수 없다. 특히 교사의 실기를 요구하는 음악 교과에서 교사의 음악적 능력은 음악교육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사의 음악적 능력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은 음악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스스로도 심각하게 느끼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음악 수업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음악 수업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교사는 14% 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이 보통이거나 낮다고 평가를 하였다. 수업의 질이 낮은 이유로 58%의 교사들이 교사의 능력 부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 반면, 5%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 8%의 교사들은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18%의 교사들은 ‘교육 내용이 어려워서’로 대답하고 있어서(김희숙, 2009, pp. 69-70) 교사의 음악적 능력이 음악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음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 보고에 의해서도 음악교사의 지도 능력과 실기 능력 부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어서(양종모, 2001; 권덕원, 2006, pp. 17-20), 성공적인 음악교육을 위해 교수·학습을 실행해 나가는 교사에게 대한 연구 및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수·학습을 위해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을 술만(L. S. Shulman, 1987)은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로 정의하며, 이를 교과내용 지식, 일반적인 교수 방법 지식, 교육과정 지식, 학습자에 관한 지식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제시된 음악 교과에서의 PCK는 음악 지식과 기능(musical knowledge and skills), 내용 교수법 지식과 기능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skills), 일반 교수법 지식과 기능 (general pedagogical knowledge and skills)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Ballantyne & Packer, 2004; 이경언 · 최승현, 2007, p. 41 재인용). 음악 교사에게 요구되는 PCK는 일반 교과에서 요구되는 PCK와 그 맥을 같이 하지만 음악 지식(musical knowledge)에 기능(musical skills)이 포함된다 는 점에서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음악에 관한 지식과 이를 기초로 한 연주 능력, 지휘, 청각적 인지 능력 등의 음악적 기능이 음악 교수법의 지식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PCK가 되는 것이다.

교사의 음악 지식과 기능이 포함되는 음악교과의 PCK는 음악교육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지만, 단 시간 내에 습득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점이 음악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물론 이것은 교사 연수 등을 통해 보완될 수는 있지만 상기에 서술하였듯이 장기간의 학습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사 연수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즉, 교사의 음악적 능력 부족을 교사의 문제로만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오직 교사의 자발적인 자기 계발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하며, 결국 이것의 의미는 음악교육의 설계를 보다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음악교육이 성공하려면 철저한 실태 분석에 의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이 실태는 학생, 환경 실태와 더불어 교사의 PCK 실태가 함께 고려된 분석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음악을 지도하는 교사의 PCK 실태 분석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을 입안하거나 음악교육을 설계하는 연구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음악을 지도하는 초등 교사의 PCK를 음악 지식, 음악 기능, 음악 교수법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음악교육의 설계 및 내용 구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에 제시된 ‘자진모리장단’을 대상으로 음악 지식의 실태, 음악 기능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3학년 음악 교과서 ‘두꺼비집이 여물까’ 제재곡의 학습 내용을 기초로 음악 교수법 지식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현재 음악 교과를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PCK 실태를 파악하고자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일반적인 표본을 표집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연령별 분포는 20대부터 고루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7대 3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국악을 일반 교사에 비해 더 공부를 하였거나 국악 관련 논문을 쓴 교사는 극히 적다. 이러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20대 1명, 30대 1명, 40대 1명으로 연령별 배치를 하였으며 여교사 2명과 남교사 1명으로 표집을 하였다. 또한 일반 교사들에 비해 국악을 특별히 더 공부하지 않은 교사로 표집을 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표집 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표집

모집단	모집단의 특성	표집 방법	표집	
			기준	표집결과
초등학교 교사	• 20대부터 연령별로 분포 •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많음 • 국악에 특기가 없는 교사가 대부분임	모집단의 특성에 따른 단순무선 표집	연령별 고른 배치	20대, 30대, 40대 각 1인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 고려	여자 2인 남자 1인
			국악에 특기가 없는 교사	3인 모두 국악을 특기로 하지 않는 교사

표집된 교사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명의 교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모두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

사들이며 3학년 음악교과를 직접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다.

A교사는 교직 경력 10년 차의 교사로서 교육대학교에서 음악과 심화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교사이다. 학교에서 합창부를 직접 지도하고 있으며 국악에도 관심이 많아서 국악 연수를 여러 차례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이다. B교사는 현재 3학년 학년부장으로 교직 경력 21년 된 교사이며 평소 국악에 대한 관심이 있어 국악 연수를 받은 경험은 있으나 음악과 관련하여 특별한 연구 성과는 없는 교사이다. C교사는 교직 경력 5년차의 교사로서 음악과 관련한 특별한 연구 성과는 없으며 국악 연수 경험도 없으나 기타 연주를 잘 하며 가창 능력이 우수한 교사이다. 특히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음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교사이다.

<표 2>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연구대상의 특성
A교사	• 30대 교사 • 교직경력 10년차 • 교육대학교 음악과 심화과정 졸업하였으며 현재 교육대학교 음악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중 • 국악연수 경험 있음
B교사	• 40대 교사 • 교직경력 21년차 • 국악연수 경험 있음
C교사	• 20대 교사 • 교직경력 5년차 • 국악연수 경험 없음

2. 자료수집

연구자는 사전에 선정된 질문을 사용하는 반구조적 면담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다. 음악교사에게 요구되는 PCK를 토대로 장단지도에 요구되

는 PCK를 설정하였으며, 교사들이 장단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파악을 하기 위하여 장단지도와 관련된 제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제재 관련 학습 내용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파악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3개의 문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질문의 유형을 사전에 준비하여 면담에 들어갔으며, 면담의 상황에 따라 질문의 유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 구성 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 구성 과정

단계	질문구성 과정	세부 내용	
1	음악교사에게 요구되는 PCK	• 음악 지식 • 음악 기능 • 음악 교수법	
2	장단지도에 요구되는 PCK	• 장단의 개념(음악 지식) • 장단의 연주 기능(음악 기능) • 장단의 다양한 지도 방법(음악 교수법)	
3	장단지도와 관련된 제재 선정	• 3학년 음악 제재곡 두꺼비집에 여물까	
4	제재의 장단학습 내용 파악	• 자진모리장단 익히기 • 자진모리장단의 세살려 장단치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진모리장단치며 노래 부르기	
5	문제 선정	문제 1	• ‘초등 교사들이 생각하는 자진모리장단의 개념은 무엇인가?’
		문제 2	• 초등교사들의 자진모리장단 연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문제 3	• 초등교사들이 자진모리장단의 세 살려 장단 치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5	질문 구성	문제 1	• 어떤 장단을 자진모리장단이라고 하는가? • 자진모리장단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 자진모리장단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단계	질문구성 과정	세부 내용	
			• ‘장단의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 ‘장단의 한배’란 무엇인가? • ‘장단꼴’의 의미는 무엇인가? • 자진모리장단을 다른 장단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 정간보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문제 2	• 장구반주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가? • 교사가 장구 반주를 할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장구 연주 수준에 대한 자기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 실연 후 연주 평가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한가?
		문제 3	• 교사들이 제재곡 두꺼비집이 여물까 2차시 교수·학습을 어떻게 전개했는가? • 자진모리장단지도는 어떻게 했는가? • 장단치며 노래부르는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 1차시와 2차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 •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내용은 어느 정도 참고하였는가?

면담은 2010년 5월 26일, 1차례 이루어졌으며 총 9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와의 면담을 돕기 위하여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장구를 준비하였으며 이야기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활용하였다. 사전에 면담할 내용의 개요와 제재곡 ‘두꺼비집이 여물까’에 대한 교재 분석 내용을 잠시 설명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편안한 대화를 위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잠시 나누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교사가 지닌 장단에 대한 지식과 기능, 그리고 교수 방법적 지식 등의 교사의 PCK를 아는데 있으므로 보다 솔직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제재곡의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진행한 교수·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화의 내용은 모두 녹취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은 면담 후 그 날 바로 전사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자는 전사된 면담 자료를 연구 문제별로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범주화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유의미한 면담 내용을 추출하였으며,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면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면담의 과정 및 내용, 상황 등을 연구에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연구 대상자들에게 점검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2차례 실시하였고,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의 검토를 거쳐 진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초등 교사들이 생각하는 자진모리장단의 개념은 무엇인가?

‘어떤 장단을 자진모리장단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초등 교사들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질문의 내용이 분명하게 인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진모리장단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의 내용으로 질문의 유형을 바꾸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딩 덩덕 쿵덕 쿵덕’의 장단형과 자진모리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전래동요가 떠오른다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으로는 교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자진모리장단의 개념을 파악하기 어려워 자진모리장단을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지를 묻는 우회적인 질문을 하였다. 교사들은 이 역시 자진모리장단은 빠르고 경쾌한 장단이라는 것과 장단의 구음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 교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자진모리장단의 개념은 장단의 빠르기, 장단의 분위기, 장단의 구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연구자: 자진모리장단은 어떤 장단을 의미합니까?
 교사 A: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진모리장단은 그냥...글쎄요.
 연구자: '자진모리장단'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사 A: '딩-덕 쿵덕- 쿵-덕 쿵덕-'이 생각납니다.
 교사 B: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연구자: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지요?
 교사 B: '고사리 꺾자', '덕석물기' 같은 좀 신나고 흥겨운 노래들이 생각납니다.
 연구자: '딩-덕 쿵덕- 쿵-덕 쿵덕-'외에 알고 있는 장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사 C: '딩-- 덩-- 쿵-덕 쿵덕' 이런 장단도 있지요?
 연구자: '자진모리장단은 이런 장단이다.'라고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교사 A: 자진모리장단은 경쾌하고 신나는 장단이다.
 교사 B, C: 글쎄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략]

- 연구자: 학생들에게 '자진모리장단은 이런 장단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사 A: 자진모리장단은 좀 빠른 장단이라고 말하고 장단을 제시한 후 구음으로 읽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함께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자진모리장단의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서 연구자는 자진모리장단의 구성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질문을 하였다. 먼저 '장단의 세'의 개념 형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처음 '장단의 세'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교사들은 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장단의 '세'를 '강세'와 비슷한 의미라고 설명을 하니까 교사 B와 교사 C는 장단의 세가 첫 박에 있다고 하였으며 교사 A는 첫 박과 아홉째 박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교사들은 자진모리장단을 빠른 장단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었으나 다른 장단과 비교하여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 '장단의 한배'와 관련지어 이해하

고 있는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빠르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교사들은 자진모리장단은 중중모리장단보다 조금 빠른 장단이며 휘모리보다는 느린 장단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장단의 한배’의 용어는 이해하고 있지 못했으며 ‘장단 꼴’의 의미에 대하여도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연구자: 자진모리장단에는 어디에 ‘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교사 C: ‘세’라는 것이 ‘강세’를 의미합니까?

연구자: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 B, C: 보통 첫 박에 강세가 있지 않나요?

교사 A: 첫 박과 아홉째 박에 강세가 있다고 봅니다.

[중략]

연구자: 자진모리장단의 빠르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교사 A: 조금 빠른 장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 B: 좀 경쾌하고 신나는 장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물놀이 같은데서 신나게 연주하는 것이 자진모리장단 아닌가요?

연구자: 다른 장단과 비교하여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사 C: 자진모리장단은 쉽고 편안한 템포로 즐겨 부르는 장단 같습니다. 중중모리장단은 좀 느린데, 이것에 비해 빠른 장단이 자진모리장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자진모리장단보다 빠른 장단은 어떤 장단이 있는지요?

교사 A: 휘모리가 있지요?

연구자: 장단의 빠르기를 장단의 한배와 관련지어 말할 수 있으신가요?

교사 A, B, C: ‘장단의 한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자: ‘장단 꼴’의 의미는 알고 계신지요?

교사 A, B, C: 그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진모리장단을 정간보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들은 자진모리장단은 12정간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이를 정간보로 기보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정간보를 오선보로 바꾸는 것은 어려워 하였으며 학생들에게도 정간보를 기초로 자진모리장단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이를 오선보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 연구자: 평소에 자진모리장단을 설명할 때 정간에 대한 설명은 하십니까? 정간이 몇 칸인지, 장단의 가락을 정간에 기보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등
- 교사 A: 정간에 대한 설명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제시된 장단을 보고 함께 연주해 봅니다.
- 연구자: 실례지만 자진모리장단의 정간이 몇 칸인지 이해는 하고 계시지요?
- 교사 A, B, C: 12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 자진모리장단을 정간보로 기보하실 수 있는지요.
- 교사 A: 할 수 있습니다.
- 교사 B, C: 그런대로 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 그러면 12정간으로 표기된 자진모리장단의 정간보를 오선보로 기보하실 수 있으신지요?
- 교사 A: 보면 알겠는데 자신이 없네요.
- 교사 B, C: 자신이 없습니다.
- 연구자: 실례지만 학생들에게 ‘자진모리 한 장단을 정간보나 오선보로 기보하여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평가 항목으로 교사 자신을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자신에게 주겠습니까. (모두 웃음)
- 교사 A: 정간보로는 할 수 있는데, 오선보는 자신이 없네요.
- 교사 B, C: 중간쯤?,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이 주로 형성하고 있는 자진모리장단의 개념은 빠르고 경쾌한 장단이라는 장단의 느낌과 ‘덩-- 덩-덕 쿵-덕 쿵덕-’의 구음으로서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진모리장단의 빠르기를 중중모리장단보다는 빠르고 휘모리장단보다는 느린 장단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빠르기와 관련된 국악 용어인 ‘장단의 한배’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였다. 교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개념은 매우 기본적인 수준의 장단 비교를 통해 자진모리장단의 빠르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장단의 세’의 용어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장단의 세를 ‘강세’로 바꾸었을 때 자진모리장단의 세는 첫 박과 아홉째 박에 있다고 말하였다. 즉, 국악적 용어로서 ‘세’가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나, ‘강세’의 의미로서 첫 박과 아홉째 박에 세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진모리장단을 정간보와 관련지어 이해하고는 있으나 이를 오선보와 관련짓는 것은 자신 없어 하였다. 정간보와 관련지어 장단을 이해하는 수준도 자진모리장단은 12정간이라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2. 초등교사들의 자진모리장단 연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초등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장구 사용을 잘 하지 않으며 주로 인터넷 사이트의 반주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장구로 기본 장단을 연주할 수는 있으나 자신있게 연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자기 평가를 하였다. 특히 범창을 하며 장구 반주 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교사의 장구 연주가 반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에 교사 A는 교사가 장구를 칠 때 학생들이 신나게 노래 부른다고 대답을 하여 교사의 장구 연주가 반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 B와 교사 C는 교사가 장구 반주를 하면 노래 부르기가 더 어렵다고 대답하고 있어서 교사의 장구 연주가 반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구 반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반주가 자신이 없다는 것과 노래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인터넷 음원을 활용하면 반주가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음정 잡기가 좋은데, 장구 반주를 하면 학생들이 음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노래 익히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자: 국악 가창 수업을 할 때 직접 장구 반주를 하는지요?

교사 A, B, C: 한번씩 반주를 합니다.

연구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요? 1학기 음악 시간에 장구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사 A: 사실 거의 인터넷 사이트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제가 직접 반주를 한 것은 한 두 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사 B: 저도 1학기 때 거의 장구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 연구자 : 장구 반주를 잘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사 C: 장구를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연주도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교사 A, B: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반주를 활용하는 것이 노래 부르기 더 쉽습니다. 수업하기도 더 쉽구요.
- 연구자: 자신의 장구 연주 수준을 상, 중, 하로 평가한다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사 A,B,C: 중간쯤...
- 교사 B: 기본 장단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습니다.
- 연구자: 장구치면서 노래부르는 가능하니까? 즉 교사가 장구치면서 범창하거나, 학생들과 함께 노래부르며 장구를 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까?
- 교사 A: 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것에 맞추어 치기는 치는 데, 자연스럽게 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장구 치는 것은 더욱 잘 되지 않습니다.
- 교사 B: 장구치기도 바쁜데 노래까지는....
- 교사 C: 저도 장구치기 바쁩니다.

[중략]

- 연구자: 교사가 장구 반주를 할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인터넷 음원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교사 A: 우리 반 애들은 제가 장구 반주를 하면 더 신나게 노래 부릅니다.
- 교사 B, C: 장구로 반주하면 오히려 더 어색하고 노래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 연구자: 노래 부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사 B: 인터넷 음원은 반주가 잘 되어 있어서 음정 잡기가 좋은데 장구를 치면 학생들이 음정을 잘 못 잡습니다. 장구 반주를 하면 노래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 교사 C: 반주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반주가 신나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즐겁지도 않습니다.

교사의 장구 연주 시연을 통해 본 교사의 자진모리장단 연주 능력은 그다지 높지 못하였다. ‘고사리 격자’ 노래를 부를 동안 한 개의 장단 유형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진모리장단의 첫 박에 세를 주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세가 없는 가락과의 차이가 적어 장단의 세를 살려 연주한다

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다. 궁편과 채편의 소리가 적절하게 나지 않았으며, 장단에 호흡을 실어 노래의 특징을 살려 연주하기 보다는 다소 기계적인 리듬의 조합을 연주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교사의 장구 연주는 학생들이 노래의 특징을 살려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주될 때 반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장단 반주 없이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장단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를 때 학생들은 더욱 흥겹게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에 알맞게 노래 부를 수 있어야 하는데 교사의 장구 연주 능력은 그러한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자: 죄송합니다만, 장구 연주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사리 꺾자’ 노래를 불러 드리면 노래에 맞추어 자진모리장단 연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자진모리장단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음악적 기능이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 지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연구자는 노래를 부르고 교사 A, B, C가 장구 반주를 함)

연구자: 대체로 같은 장단형을 반복하여 연주하고 계신데, 혹시 장단의 유형 중에서 ‘맺는 형’, ‘다는 형’ 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사 C: 예, 5학년 음악을 지도할 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연구자: 굿거리장단 지도하실 때 하셨지요?

교사 B: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자: 자진모리장단 연주를 하실 때도 ‘다는형’과 ‘맺는형’ 등 노래 가락의 특성을 살려 연주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교사 A, B, C: 그렇게 연주해 보지는 않았습시다.

교사 A: 노래를 마칠 때 좀 더 큰 소리로 ‘딱’하며 맺는 장단을 치곤 하였습시다.

연구자: 이번에는 제가 장단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연주하신 장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자가 ‘고사리 꺾자’ 노래를 부르며 자진모리장단을 연주함)

교사 A: 강세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첫 박과 아홉째 박이 더 강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더 깨끗하게 들립니다.

연구자: 소리가 깨끗하게 들린다는 의미는 채편과 궁편의 소리가 깨끗하게 잘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사 A: 예, 그렇습시다.

연구자: 그것은 연주 기법 때문입니다. 채편은 오른쪽에 채를 붙이고, 궁편은 튕

기며 연주해야 북소리처럼 소리가 울립니다. 또 다른 점은 없습니까?

교사 C: 뭔가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잘 어울리게 연주를 합니다. 규칙적으로 리듬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덩실 덩실 춤사위가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연주를 합니다.

교사 B: 장단의 리듬이 노래와 잘 어울립니다. 노래가 커질 때는 장구 소리도 같이 커지는 것 같고...

연구자: 장단형을 노래 가락에 맞게 바꾸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춤사위가 나올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마도 장단을 연주할 때 호흡을 실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혹시 장단 연주 시 호흡을 실는다는 느낌으로 연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사 A, B, C: 없습니다.

연구자: 호흡은 일종의 빠르기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빠르기와 관련하여 '장단의 한배'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단을 연주 할 때 '장단의 한배'가 느껴지십니까? 혹은 장단의 한배를 느끼며 연주할 수 있겠는지요?

교사 A, B, C: 여전히 '장단의 한배'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빠르기와 같은 의미라고 하면 이해될 것 같지만, 연주는 더욱 더 잘 안되겠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음악 수업 시간에 장구 반주를 직접 하면서 수업을 하기보다는 주로 인터넷 음원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었다. 장구 반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반주가 자신이 없고, 노래를 익히거나 음정을 잡을 때 장구 반주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기본 장단을 연주할 수는 있으나, 교사들의 장구 반주는 대체로 반주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적인 장구 연주 시연을 관찰하여 본 결과, 노래의 특징을 살려주는 장구 반주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한 장단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궁편과 채편의 소리가 좋지 않고, 장단의 세, 한배, 호흡 등의 장단의 개념적 이해를 기초로 장단 연주를 하고 있지 못하였다.

3. 초등교사들이 자진모리장단의 세 살려 장단 치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교사 A는 제재곡의 맥락을 설명한 후 인터넷 음원을 활용하여 듣고 부르기를 하였으며 어느 정도 곡을 익혔을 때, 장단 치기를 하였다. 평소 장단치기는 필통을 장구 대행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손뼉치기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 B는 재량활동 시간에 배정된 강사가 장단지도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장단지도는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노래부르기 활동은 인터넷 음원의 반주에 맞추어 듣고 부르기와 분단별로 장단치며 노래부르기 활동을 하였다. 교사 C는 단순화된 장구 구음을 칠판에 제시한 후 장단 연주 연습을 하였고, 이것이 익숙해 졌을 때 가락을 더 많이 넣어 장단 연주를 하였다. 장구치기를 모듬별 학습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장구를 잘 치는 학생을 모듬에 한명씩 배치하여 장구 연습을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수준별 학습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자진모리장단의 세 살려 장단 치기'라는 학습목표 및 내용의 초점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연구자는 다시 지도서에 제시된 제재곡의 학습지도계획을 안내하였으며 차시별로 이 제재곡의 지도를 어떻게 하였는지 대략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교사 A와 C는 1차시는 주로 노래 부르기를 하였으며 2차시는 장단치며 노래부르기를 하였다고 대답하였으며, 교사 B는 노래부르는 활동도 어렵고 장단 치는 활동도 어려우므로 1, 2차시를 구분하지 않고, 장단치며 노래부르기 활동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본 제재곡의 주요활동이 1차시의 모래놀이 흥내 내며 제재곡 부르기, 2차시의 노래에 맞추어 자진모리장단치기의 주요활동이 구분되지 않고 지도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노래에 맞추어 장단 치는 활동을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장단 치는 활동만을 목표로 설정한 교사도 있어서 교육과정의 이해와 학습목표의 이해가 명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수업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 연구자: 1학기에 제시된 제재곡 ‘두꺼비집이 여물까’ 2차시 수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교사 A: 먼저 이 노래는 모래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것이라고 알려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듣고 따라 부르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노래를 익힌 후 장단치며 노래부르기를 하였습니다.
- 연구자: 장단은 주로 어떻게 치도록 지도하십니까?
- 교사 A: 평소에 장단치기는 책상 위에 필통을 올려놓고 왼쪽과 오른쪽 면을 치기, 손뼉으로 치기, 학반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노래 부르고, 나머지 반은 손뼉이나 필통으로 장단치기 활동 등을 합니다. 이 노래를 배울 때에는 손뼉으로 장단을 쳐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 교사 B: 우리 학교에서는 강사실에서 지정된 강사가 와서 장구지도를 합니다. 재량활동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시간에 특별히 장구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 연구자: 그러면 장단 치며 노래 부르기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 교사 B: 학생들이 이미 자진모리장단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장단을 치면서 노래 부르기를 합니다.
- 연구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교사 B: 인터넷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따라 불렀고, 1, 2분단은 장단을 치고 3, 4분단은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냥 노래 중심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 교사 C: 저는 장구 구음을 칠판에 제시하고 장단연습을 하였습니다. 구음을 4박으로 나누어서 ‘딩 덩 덩 덩’으로 기본 장단을 쳤고, 그런 다음 세분화 시켜서 장단연주를 수준별로 해 보았습니다.
- 연구자: 어떻게 수준별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 교사 C: 우리 반이 33명이라 8개 모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구를 잘 치는 학생을 모듬장으로 하여 장구를 1개씩 주고 연습하게 하였습니다.

[중략]

- 연구자: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보면 1차시에는 듣고 부르는 활동과 모래놀이 흉내내며 노래 부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2차시에는 장구연주 방법과 자세를 익히는 활동과 자진모리장단 치기, 노래에 맞추어 장단치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2차시를 어떻게 구분하여 가르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사 B: 장단치기는 이미 국악강사에게 배웠으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노래부르기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모래 놀이 흉내내기는 하였습니다.

교사 A: 정확하게 내용을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래익히는 활동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장단치는 활동도 쉽지 않으므로 두 활동을 통합하여 했습니다.

교사 C: 1차시에는 주로 노래를 배웠으며 2차시에는 장단연주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둠별로 장구를 한개 씩 나누어 주고 장구로 장단 연주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사들이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활동들을 어느 정도 참고하여 실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활동들을 소개한 뒤 그것의 실행 여부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였다. 현재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장구의 명칭과 연주 방법, 장구 음색의 탐색 등은 교사 A인 만이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였으며 나머지 두 교사는 하지 않았다. 장단연주를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활동은 세 교사 모두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활동이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한 시간 수업으로는 양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연구자: 교사용 지도서에는 본 차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이 활동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구를 보면서 장구의 기본적인 명칭과 연주 자세 등을 설명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활동을 해 보셨나요?

교사 A: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교사 B: 강사실에서 강사가 왔기 때문에 장구에 대한 지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사 C: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 혹시 북편, 채편, 변죽의 음색에 대한 탐구는 하지 않았는지요?

교사 A: 인터넷 사이트에 제시되어 있어서 하였습니다.

교사 B, C: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 제제곡에 맞추어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활동과 비슷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교사 A: 장단 지도만 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교사 B, C: 이 차시는 수업의 양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지도서에 제시된 대로 장구에 대하여 탐색을 하고, 장구 연주 방법을 익히고 장구 구음을 익힌 후 자진모리장단을 치고, 거기에 제제곡에 맞추어 여러 악기로 장단을 연주해 보는 활동은 현실적으로 수업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도 하고, 3학년 수준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2 시간 정도 연속 차시로 하면 모를까, 악기 꺼내다 보면 시간 다 갑니다.

교사 A: 실제로 구음지도만 한 후 구음 연습하고, 구음에 맞추어 노래부르는 정도가 40분 수업으로 적당합니다. 여러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3학년 수준과 맞지 않습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들은 주로 인터넷 음원을 통해 제재곡을 익힌 후 여기에 맞추어 장단치기 활동을 하며, 장단치기는 주로 손뼉 치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구 대행으로 필통같은 모형을 사용하기도 하며, 모둠별로 장구 한 개를 준비하여 장단을 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강사실에서 강사가 오는 경우에 장단 지도를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으며, 1, 2차시 수업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교사들이 지닌 교수 방법 지식이나 교육과정 지식 등과 관련된 PCK는 본 수업의 목표 도달을 위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었다.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장단지도는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활동을 참고하여 가르치기 보다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PCK를 중심으로 지도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였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활동들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생 수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40분 수업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여, 교사용 지도서가 학생 수준과 양의 적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의 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3명의 교사들은 질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자진모리장단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장단의 느낌, 빠르기, 장단의 구음, 정간보와 관련한 장단의 이해, 장단의 세에 대한 개념 등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도움적 질문을 통해 파악하고 있어서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영역에서 새로 추가된 용어인 ‘장단의 한 배’, ‘장단 꼴’, ‘장단의 세’에 대한 용어는 알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자진모리장단 학습을 하는 데 요구되는 교사의 PCK 중에서 음악 지식 영역은 음악 교육의 질을 확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둘째, 교사들의 장구 연주 기능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자진모리장단의 개념들이 연주 기능과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자진모리장단의 한 두 장단은 연주할 수 있었으나, 이것이 반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향이 더 강했다. 교사의 장단 연주는 국악 수업을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래를 부를 때 장구 반주는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게 해 주고, 음악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르게 하며, 우리 음악의 즉흥성, 신명, 다양성 등의 특성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장구 반주가 도와준다. 그러나 이러한 반주의 기능을 하기에 교사의 장구 연주 기능이 미흡하여, 장단 학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음악교육 목표 도달에 필요한 교사의 음악 기능에 대한 PCK는 부족하다.

셋째, 교사들은 자진모리장단 지도를 할 때 주로 인터넷 음원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었으며, 교사용 지도서 등의 교수 자료를 활용하기 보다는 교사가 지니고 있는 PCK를 중심으로 지도되는 경향이 있었다. 자진모리장단 지도에 대하여 교사가 지닌 PCK는 노래를 부르고 손뼉으로 장단을 연주해 보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매우 단순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었다. 초등교사들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하고 전략적인 PCK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학생들의 음악적 창의성을 자극하며 즐겁게 활동을 하는 음악 수업을 전개하기에 교사가 지닌 음악 교수법에 대한 PCK는 부족하다.

2. 제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악 연수가 실시되었고 교사의 국악적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을 다각도로 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들의 자진모리장단 개념 이해 수준은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교사 연수나 노력들이 '교사'라는 학습자에게 적합하게 내용 구성을 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나 교과서를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교사들에게 너무 어렵게 구성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사들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국악의 특수 용어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 교사가 알지 못하는 용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리 없으며 이러한 용어들은 교사들로 하여금 국악교육을 멀리 하고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악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실행의 효과를 높이려면 국악 특수적인 용어보다는 이제까지 교사들이 알고 있는 음악의 일반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장단 연주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오랜 시간과 수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장구 반주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국악 수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이 재미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를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안내되어야 한다.

셋째, 국악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음악 교수법에 대한 PCK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장단연주 기능과 더불어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음원도 배척만 할 일이 아니라, 제도권 내로 수용할 수 필요가 있다. 인터넷의 음원이나 CD 반주를 활용하여도 유의미한 국악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안내되어야 하며 음원의 질과 내용의 수준도 교육과정의 실행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진모리장단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연주 능력, 교과 내용 지식, 교수 방법 등과 관련된 교사의 PCK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진술에 의존하여 분석을 하였다는 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진모리장단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실태는 서술형 등의 평가를 통해, 연주 능력은 시연을 통해, 그 밖의 교수 방법 지식 등은 수업 관찰 등을 통해 교사의 PCK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2] .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국정도서편찬위원회.
- 권덕원 (2006). 국악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음악교육연구, 30, 1-29.
- 김희숙 (2009). 초등학교 음악과 국악내용의 적합성 분석 준거 개발.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민경훈 외 (2009).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양종모 (2001). 음악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I), 한국 초·중등 음악교육의 실태에 대한 양적 접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경언·최승현 (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음악과 내용 교수 지식 (PCK)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Fullan, M. (2001).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Print, M. (1988). *Curriculum development and design*. 강현석 외,
(2006). 교육과정 개발과 설계. 서울: 교육과학사.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 1-22.

ABSTRACT

**A Study of PCK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Jajinmorijungton
(자진모리장단)**

Kim, Hee-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achers' PCK(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using quality study methods for Jajinmorijungton and to suggest alternative layouts and content in an effort to structure a far superior educational curriculum than the recently published curriculum. Results from the interviews showed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very little knowledge of the new terms introduced from the latest educational curriculum. Not only were the abilities of the interviewed teachers lacking in knowledge of the curriculum's content, but their general teaching approaches and learning methodology was substandard.

The reflection of the teacher's PCK fro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usical curriculum and music textbook should be simplified in an effort help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 the material and in turn instruct their students. Moreover, the curriculum's vocabulary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n addition to our updated simplified curriculum for the teachers, the writer asserts that the teachers need to be better trained in order to utilize the curriculum or the course books. The writer's recommendation is to develop an easily accessible training program that would be available through the internet. Lessons offered on this website would be created by professionals and endorsed by scholars in the field of study.

Key Words : Jajinmorijungton(자진모리장단), PCK, Elementary School Teachers, quality study methods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 11월 5일(11월 13일), 게재확정일: 12월 2일